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1월 30일(일) 제1566호



사진은 2023 장로장립예배.

“진리의 길 가는 장로되겠습니다!”

‘2025 장로장립예배’ 64명 장로 장립 12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온누리교회 신임 장로 64명이 장립된다. 12월 6일(토)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25 장로장립예배’를 드린다. 이날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 64명(명예장로 3명, 장로 61명)이 온누리교회 장로로 세워진다. 2025 장로장립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서

드린다. 1부에서는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대표기도, 장로합창단 특별찬양,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설교, 최이정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 간증, 합심기도, 2부에서는 서약, 세족식, 이재훈 위임목사 안수기도 및 선포, 이재규 장로 권면, 크룩스 축하 특순, 선물 증정, 장로의

기도 등이 이어진다. 박기일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OCC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김을 감당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진리의 길 가는 장로가 되겠다”고 고백했다. 전진국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당회운영위원회)는 “말씀 묵

상과 기도로 믿음을 다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는 장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들은 지난 3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진 ‘2025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노회에서 치른 장로고시를 통과했다. 2025 장로사관학교에서는 ‘온누리교회와 Acts29’, ‘바람직한 장로상’, ‘금홍의 영성’ 등을 주제로 온누리교회 장로로서의 소명과 역량을 키우는 훈련을 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대학청년부, ‘겨울사역’ 시작

12월 6일부터 ‘사랑앓나눔’, 20일부터 ‘크리스마스 블레싱’

대학청년부 겨울사역이 시작된다. 12월 6일(토)부터 지역 교회 및 기관과 함께 불우 이웃,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에게 쌀과 김치,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사랑앓나눔’을 한다.

올해 ‘사랑앓나눔’에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1,1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지역 교회와 복지관, 주민센터 이름으로 이웃 1,075가구에 쌀과 김치, 생필품 등을 전달한다.

12월 20일(토)부터는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이어진다. 전국 30여 개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성탄예배, 마을 전도, 새벽송, 가정 블레싱, 군장병초청집회,

이주민 연합 크리스마스 예배, 대학로 탐방 및 찬양집회 등을 한다.

지난해 ‘사랑앓나눔’에서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955명이 서울 시내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 교회 등과 연합해서 이웃 1,185가구에 쌀과 김치, 생필품을 전달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에서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2,324명이 서울시 서초구, 강동구, 은평구,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김제, 부안,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성군 등 23개 지역 교회에서 이웃 초청 잔치, 어린이 성경학교, 마을 전도 등을 했다.

/ 홍하영 기자

권사·안수집사 634명 임직

하나님 나라 새 일꾼 634명이 세워졌다. 11월 29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2025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명예권사 4명, 권사 166명, 안수집사 464명(남자 159명, 여자 305명)이 임직됐다.

2025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드렸다. 1부에서는 김해기 장로 대표기도, 온누리세라핌합창단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합심기도 등을 했다. 2부에서는 임직 서약, 안수 기도, 임직 선포,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권면, 임직증서 수여 등을 했다.

2025 권사·안수집사 임직자들은 ‘2025 임직자스쿨’을 수료했다. 임직자스쿨에서는 ‘선교적 교회’,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 ‘부르심과 헌신’, ‘행복한 가정과 리더’ 등을 주제로 훈련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온누리교회 협력 기관 방문 및 개인 영성 훈련과 교회 내 봉사활동을 했다.

2025 엔젤트리, 사연 2,309건 연결 대기 중

‘2025 엔젤트리’ 사연 2,309건(26일 기준)이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엔젤트리에는 총 5,035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 데스크에서 사연을 뽑고, 사연 속 주인공을 위해 기도하고, 선물을 보내면 된다.

제55회 메시아 연주회

제55회 메시아 연주회가 12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세종대극장에서 막 오른다. 제55회 메시아 연주회에는 60여 개 한국 교회에서 모인 찬양대 300여 명이 무대에 오른다. 라퐁즈 플레이어즈 그룹과 협연하고, 홍정표 교수가 지휘한다. 소프라노 홍혜란, 콘트라alto 오스틴 김, 테너 최원휘, 바리톤 이승왕이 솔리스트로 출연하고, 챔발로에는 남예셀, 오르간에는 민혜원이 협연한다(관련 기사 6면).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지도자들을 모아서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또다시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신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유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있는 힘을 다해 다시 한번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 설교하는 것입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당부를 했습니다. 신앙의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당부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겜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아홉이 방황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자신의 우상을 모두 파묻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겜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요, 회개의 장소요, 결단의 장소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건강상의 이유로 움직이기 쉬운 지역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23장과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사랑할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기

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14~15절).

14절에서 ‘그러므로’는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 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그곳의 신들을 섬겼고, 이집트에 있을 때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애굽에 임했던 열 가지 재앙은 그 신들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심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또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 같은 끔찍한 신들을 끊임없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서 지적합니다. 어느 시대, 어떤 지역에 살든 그 시대의 우상에 사람들이 휩쓸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무신론이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믿음입니다. 더 어려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세상의 경험을 믿고, 존재하지 않는 우상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도전하는 것은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진짜 신앙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강요로, 어쩔 수 없어서, 시켜서 하는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대신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랄수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자신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어떤 선택도 없이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

결단의 오늘

여호수아 24:14~28

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미래 시제만 사용했지만, 히브리어 시제는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택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호수아〉 전체, 여호수아의 인생을 봐도 그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우상을 거부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일원이 되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도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아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끌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역사 속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에게도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믿음은 결국 선택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이 마치 지하철 노선표처럼, 건물의 설계도처럼, 드라마 시나리오처럼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처럼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정은 전제가 아니라 결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선택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저자 칼빈도 예정의 교리를 구원론 다음에 썼습니다. 예정은 구원받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고백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누군가는 구원 못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는 것은 신앙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운명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우리의 내일이 오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는지가 내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선택을 오늘 결단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할 기회는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내일의 미래는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선택을 대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의 수메르, 앗시리아, 바벨론 사람들의 문자에 남아있는 기록 90%가 예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앗시리아 사람들은 죽은 동물의 간을 보고 신의 뜻을 분별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행운이나 불행을 맞추고, 때로는 별자리에 맞춰서 국가 간의 조약을 맺고, 전쟁하고, 상인들은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능력을 포기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으니 눈과 귀가 보이지 않고 막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선택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도전에 백성들이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흘러넘쳐야 합니다. 흐르지 않으면 우상에 휩쓸립니다.
오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19~20절).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래, 잘했다. 바로 그거다”라고 칭찬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라고 좌절시키는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한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각오와 결단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견고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박힌 단단한 못처럼, 단단한 결단을 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뜻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지금 고백했느냐? 내가 보기엔 그 정도 고백과 결단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는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만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라.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지금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냐?”

더 강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라는 단어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여기

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소유에 대한 질투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질투는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관심과 삶이 하나님에 아닌 다른 것에 드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로 인해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용서하고 괜찮아. 나는 관용이 있는 사랑이야”라고 말한다면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하기에 서로 독점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만 원할 때 그것을 편협하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섬김과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 자체가 불행이고, 더 나아가 징벌이 됩니다. 우상을 계속 섬기면 그 자체가 징벌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말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만을 섬기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경배하는 신을 닮습니다. 무엇을 예배하는가, 무엇을 섬기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짓고 변화시킵니다. 만일 섬기는 대상이 보잘것없는 우상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볼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21~24절).

높은 산을 산책 삼아 오를 수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산책 가는 차림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높은 산으로 향해야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대충대충 마음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흘러넘쳐야 합니다.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에 휩쓸립니다. 오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은 오늘이 아닌 내일 하겠다고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단’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결단을 주장하시고,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결국, 믿음이 이긴다!



〈끝내 이기게 하십니다〉
이규현 저 | 두란노 | 17,000원

많은 그리스도인이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영적 활력을 잃고 있다. 신앙의 길은 익숙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적 무기력과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곤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증되었기 때문이다.

〈끝내 이기게 하십니다〉는 승리의 삶이 ‘영적 기본기’에서 시작됨을 강조한다. 말씀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열심과 능력만으로는 광야 같은 인생을 건널 수 없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신앙이 깊어지고, 삶은 풍성해진다. 익숙한 종교 생활에 머물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승리 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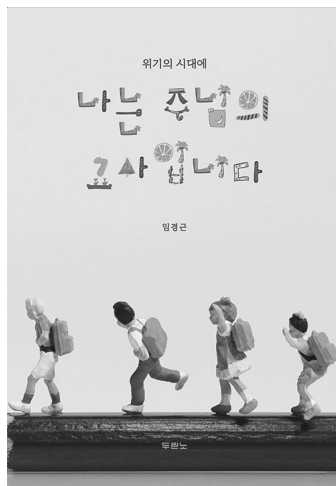
저자 이규현 목사는 그 승리의 길을 ‘회복’, ‘성숙’, ‘

승리’ 세 단계로 설명한다. 고난을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과정으로 재해석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든다. 그리고 단언한다.

“결국, 믿음이 이긴다.”

이 책은 ‘시험이 반복되는 삶’, ‘미래에 대한 두려움’, ‘침체된 영성’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승리하는 삶을 다시 붙들고 싶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영적 안내자, 다음세대 위한 희망



〈나는 주님의 교사입니다〉
임경근 저 | 두란노 | 12,000원

교사란 무엇인가?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학습자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도록 안내하는 조력자이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동반자이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삶 형성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안내자이다.

교회 학교 교사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복음을 가르칠 뿐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 존재가 크리스천 교사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저출산, 세속화, 가정 신앙교육의 실종, 공교육 전반에 흐르는 무신론적 분위기’가 다음세대의 신앙 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나는 주님의 교사입니다〉는 급격히 쇠퇴하는 한국 교회 주일학교 현실에서 교회 학교 교사의 정체성과 소명을 다시 세우기 위해 세상에 나왔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왜 주일학교 사역이 ‘극한 봉사’로 여겨지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과거 부흥 시대를 돌아보며 오늘날 교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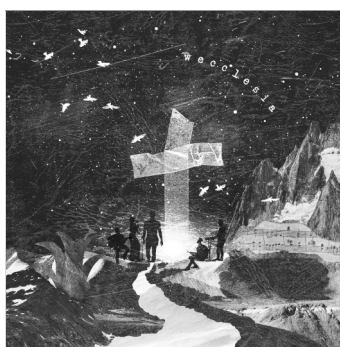
다시 교사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부에서는 참된 교사란 누구인지 묻고, 변화한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맞춘 새로운 교사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대형 부흥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한 명의 교사가 심는 신앙의 씨앗에서 시작된다.

〈나는 주님의 교사입니다〉는 주일학교 교사가 시대가 흔들릴수록 더욱 필요한 영적 안내자이며, 그 존재 자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임을 일깨워 준다.

연필리_‘연말에 듣기 좋은 찬양 플레이리스트’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위클레시아(Wecclesia)

별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뿌듯함보다 아쉬움이 앞설 때가 많다. 계획했던 일들은 미완성인 것 같고, 믿음의 여정에서 잠시 넘어졌던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진다. ‘조금 더 잘할걸’, ‘그때 왜 그랬을까’ 지난 순간을 곱씹으며 후회가 밀려오기도 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

하노라”(빌 1:6).

후회와 아쉬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연말, 찬양으로 위로받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위클레시아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를 추천한다. 〈빌립보서〉1장 6절 말씀이 배경인 이 찬양은 우리의 연약함마저 감싸 안으며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

이 찬양은 우리의 모든 날이 우연이 아니라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다’고 고백한다. 때로는 우리가 걷는 길이 더디게 느껴지고, 넘어져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 그 끝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것을 선포한다.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는 주체는 나의 연약한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전히 부족한 내 모습에 불안하다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를 바란다.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해를 평안과 감사로 매듭짓기를 소망한다. 위클레시아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는 하단 QR 또는 음원 사이트(멜론, 지니, 유튜브 뮤직, 벅스 등)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 듣기

뜻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뜻대를 향하여’
어노인팅(Anointing)

단이 필요하다.

어노인팅의 ‘뜻대를 향하여’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 찬양은 〈빌립보서〉3장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 버리고 오직 주님께 달려가라’고 권면한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유익이나 육체의 자랑은 모두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다(빌 3:8).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 뼈아픈 실수의 순간은 모두 십자가 뒤로 흘려보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가자. 세상의 헛된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오직 믿음의 뜻대 되신 예수님께 고정할 때 예비된 은혜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다. 후회 대신 벅찬 소망을 안고 거침없이 달려가기를 기도한다.

어노인팅 ‘뜻대를 향하여’는 하단 QR 또는 음원 사이트(멜론, 지니, 유튜브 뮤직, 벅스 등)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 듣기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모두가 행복한
‘그린 크리스마스’

11월 30일(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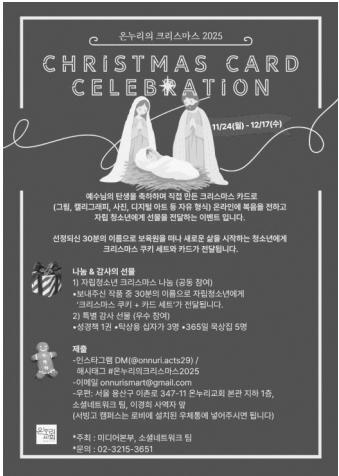
교회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축하하며 기쁜 시간을 보낼 때, 세상도 화려한 조명과 선물, 파티로 들쭉인다. 그것 때문인지 12월은 일 년 중에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과도한 포장지, 일회용 장식, 남겨진 음식물 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화려한 왕궁이 아닌 초라한 말구유에 오셨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정작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과소비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번 대림절에는 겸손히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화려함보다 단순함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쓰고 버리는 포장지 대신 재사용 가능한 보자기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장식 대신 꽃이나 솔방울, 목화솜 등 자연물을 이용한 트리를 만들어보자. 우리의 작은 절제가 창조 세계를 지키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될 것이다. 지구와 이웃을 돌보는 모두가 행복한 ‘그린 크리스마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2025

미디어사역본부, 12월 17일까지 크리스마스 축제



미디어사역본부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2025’를 개최한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그림과 사진으로 이웃에게 마음을 나누는 크리스마스 축제다.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2025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크리스마스 카드(그림, 캘리그라피, 사진, 디지털 아트 등)를 직접 만들어서 제출하면 된다. 인스타그램 DM이나 해시태그(#온누리의크리스마스2025), 이메일(onnurismart@gmail.com), 우편(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11 온누리교회 본관 지하 1층, 소셜네트워크 팀 이경희 사역자)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

름과 소속 캠퍼스, 공동체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해시태그로 참여하는 성도들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정보 전달).

이번 크리스마스 축제는 사회선교본부 온누리울타리사역팀과 함께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성도 60명을 선발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 쿠키와 카드를 전달한다. 우수 참여자들에게는 특별감사선물(성경책 1명, 탁상용 십자가 3명, 365 목상집 5명)도 준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청소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 1기 첫 만남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이 시작됐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양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 1기 첫 만남이 지난 11월 16일(일) 오전 10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4층 동아리실에서 있었다.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와 동반자, 스태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예배,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 사역 소개, 이기훈 목사 격려 말씀과 기도, 나눔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기훈牧사는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크리스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

르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길러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인기 팀장(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팀)은 “올바른 신앙 전수는 이 시대의 중대한 사명이자 과제”라면서 “더 많은 청소년이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수료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은 16주 동안 이어진다. 지난 10월 말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교육을 받은 부모와 조부모, 교사와 성도 등이 양육한다.

문의: 010-4708-8158

/ 홍하영 기자

12월 화요성령집회 ‘성탄의 기쁨’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12월 화요성령집회가 ‘성탄의 기쁨’을 주제로 열린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2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2일 최성민 목사 ‘기다림의 기쁨’ (눅 2:25

~32), 9일 최대홍 목사 ‘동행의 기쁨’ (요 1:1~14), 16일 최성민 목사 ‘구속의 기쁨’ (롬 3:21~26), 23일 이서진 목사 ‘화평의 기쁨’ (엡 2:11~22), 30일 최성민 목사 ‘소망의 기쁨’ (계 22:12~21)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김상진, 우미셀, 아이자야61 정연준 등의 특순도 준비되어 있다.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 17기 모집

12월 13일~1월 17일
매주 토 오후 6시 30분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17기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남양주온누리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1월 10일(토)부터 15일(목)에는 청소년반 베트남 아웃리치를 간다.

참가신청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다. 회비는 부모반 5만 원(부부 8만 원), 청소년반 5만 원(형제, 자매 8만 원, 아웃리치 회비 별도)이다. 청소년반 스태프도 모집한다. 문의: 010-6476 0524(이건준 전도사)



양재여성사역 성경일독 학교 저녁반(신약) 모집

2026년 1월 8일~2월 26일
매주 목 오후 7시

양재여성사역 성경일독학교 저녁반(신약)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장소 추후 공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2월 27일(토)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양재여성사역 성경일독학교 저녁반(신약)에서는 말씀을 읽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한다.

문의: 02-570-7457

/ 박지혜 기자

오병이어사역팀 노숙자 초청 섬김

노숙자, 사역팀원 등 480여 명 참석

서빙고온누리교회 오병이어사역팀이 지난 11월 24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노숙자들을 초청해서 자장면을 대접하고, 함께 예배드렸다. 이기훈 목사님과 사역팀원, 노숙자 등 48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배는 오병이어 성가대 찬양, 이기훈 목사 설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서동 어르신은 “소문을 듣고 왔는데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면서 “예수님을 믿고, 앞으

로도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청오 성도(오병이어공동체)는 “오병이어사역팀의 맞춤형일대일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주변에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병이어 사역은 교회에 출석 시 천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던 형태로 시작해, 현재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자장면을 제공하고, 함께 정기예배를 드리고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2025 Joyful Christmas-Holy design’

LOVE DIVE, 12월 6일 오후 3시 대학로 이룸 3층

20대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결혼가정문화세미나 ‘LOVE DIVE’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다. 12월 6일(토) 오후 3시 대학로 이룸 3층에서 ‘2025 Joyful Christmas-Holy design’을 주제로 진행된다. 20대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이번 ‘Joyful Christmas’ 파티에서는 김선우 대표(스토리앤스타일)가 ‘그리스도인다운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스타일링’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10-9090-6746



CGN, 2026 달력 출시

한국로잔과 CGN이 함께 말씀 달력 ‘이천이십육년의 기도’를 출시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를 비롯해 12명의 목회자가 매월 주제 말씀을 선정했다. 가격은 1만6천 원이다.

CGN 성경 통독 프로그램 ‘일일-통독’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2026 성경통독 달력’도 판매한다. 가격은

5천 원. 매일 읽어야 할 성경 분량을 날짜에 표기해서 ‘1년 1독’을 완주하도록 독려한다.

말씀 달력과 성경통독 달력 구매는 두란노서점(서빙고점, 양재점, 송도점)이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QR 코드 참고).

문의: 02-796-2310



NGO 더멋진세상, ‘Bright Future ECD센터’ 지역사회 이양식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지부가 지난 3년 동안 실시한 ECD(Early Childhood Development, 유아교육)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11월 21일(금) ECD 프로젝트의 결실인 ‘Bright Future ECD센터’를 지역사회로 이양하는 ‘Bright Future ECD센터 지역사회 이양식’이 있었다. 학부모와 마을 주민, 지

역사회 리더, 블랜타이어 지방정부 관계자 등 370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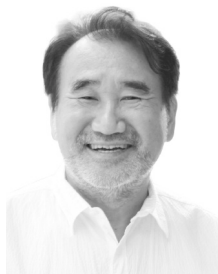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지부 ECD 프로젝트는 KOICA 기금 지원을 받아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말라위 블랜타이어 시골 지역 치린디메(Chilindime)마을에서 진행됐다.

/ 홍하영 기자

11월 세례명단

〈서빙고〉	김시은 250506	김상범 820916	김시호 250109	
강귀순 630801	김태형 김성은	조민희 850201	김두환 권해리	여호수아
강소원 920211	김지한 250120	한준현 850421	김효원 240829	김채욱 940312
김승욱 900115	김진규 오명은	-유아	김현우 문수진	황창호 950621
김재원 851119	김태이 250116	권은우 230804	손명민 250526	
김지연 760423	김승욱 강소원	권준성 박상희	손영국 김효진	-유아
문진욱 910416	문 강 241015	권지한 220725	이도휘 241014	강이찬 240828
신태경 920619	문진욱 김보람	권중호 한국화	이호준 나태경	강신현 이은비
이세윤 871014	오시우 190329	권하임 250805		
임정민 690110	오현석 주한별	권현준 정경침		
주연진 001228	오시윤 220212	김규연 240224		
	오현석 주한별	김진용 이재아		
-유아	조하이 250425	김민준 250126		
고우영 230725	조래훈 김예준	김도윤 김혜성		
고은태 김지혜		김 산 220103		
권 율 220215	〈양재〉	김상범 이주는		
권영식 박백희	김대현 990403			

장로칼럼

홍정표 장로
(OCC공동체)

한국 교회의 오랜 전통이자 자랑인 ‘메시아 연주회’가 올해 제55회를 맞이하며 뜻깊은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연주회는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한국 교회 연합과 섬김의 정신을 상징한다. 메시아 연주회가 1965년 첫 연

주를 시작했으니, 만 60년 세월이다. 강산이 여섯 번이나 변하는 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이어진 이 연합 찬양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지휘자로서도, 성도로서도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이자 영광이다.

메시아 연주회는 단순히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려는 기교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다. 60년 전,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작곡한故 박재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가 연합했다. 당시에는 개별 교회의 힘만으로는 이 방대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를 감당할 실력이 되지 못했다. ‘할렐루야’ 합창 하나만 제대로 소화해도 대단하다고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그렇기에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합창단을 구성했다. 오직 합창을 잘하고

싶은 열망, 훈련된 목소리로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드리고 싶은 열망들이 하나로 모였다.

초기 연주는 시민회관에서 시작되었는데, 화재로 인해 2~3년 동안 연주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등 여러 어려움으로 몇 번의 공백은 있었지만, 이 연주회가 60년 동안 55회를 이어왔다는 사실은 곧 한국 교회 연합의 끈질긴 생명력을 증명한다. 특히 올해는 창립 40주년과 맞물려 온누리교회가 메시아 연주회의 주관 교회 역할을 맡아 더욱 감회가 새롭다.

나는 이 연주회가 6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찬양의 힘’을 꼽는다. 내가 베를린에서 공부할 때, 그곳의 목사님들은 서로 얼굴도 보지 않을 만큼 교류가 없었다. 하지만 성가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부활절 찬양제’를 열었더니 놀랍게도 그 일을 계기로 목사님들의 모임이 생겨났다. 이처럼 찬양은 마음을 하나로 묶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교파와 관계없이 ‘메시아’라는 단 하나의 매개체로 모인 찬양공동체는 어떤 세속적인 이유로도 흩어지지 않는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 초교파적으로 오랫동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찬양의 힘 ‘메시아 연주회’

메시아위원회는 매년 주관 교회를 선정하고, 이 모임이 잘 흘러가도록 돕는 울타리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 메시아위원회 음악 이사로서 30년 넘게 봉사해 왔다는 것은 내게 큰 축복이다. 온누리교회가 주관했던 35회, 44회에 이어 이번 55회까지 쉽지 않은 기회인 지휘를 세 번째 맡게 된 것도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번 연주회는 내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이 무대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성악가들이 함께해 왔다. 이번에는 늘 이 자리를 빛내주었던 김영미 권사님(소프라노)의 제자인 홍혜란 교수와 그의 남편인 테너 최원휘 교수가 함께한다. 오르간과 쳄발로 연주자 역시 온누리교회 출신 민혜원 자매, 남예셀 형제 부부가 맡아주었다. 음악을 넘어 가족과 같은 깊은 연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60년 동안 이어진 메시아 연주회에는 수많은 감동의 순간이 있었다. 매년 한 번도 빠짐 없이 50회 이상 연주회에 참여해서 이제는 ‘메시아 매니아’가 된 성가대원이 있다. 연주회 참석을 간절히 원했지만 끝내 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성도의 사연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 성도의 뜻을 이어 연주회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품었다는 딸의 이야기 등은 이 연주회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선 깊은

신앙적 울림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애틀에서 만난 목사님의 동생이 매년 메시아 연주회에 참석한다고 자랑하시던 모습 또한 잊을 수 없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병원을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로 시작했다. 메시아 연주회 역시 55회 동안 이 전통을 한 번도 빠짐 없이 이어왔다. 과거 김밥 한 줄이 천 원도 안 하던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 모임을 할 때마다 5배 이상 지출이 늘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섬김의 정신만은 변하지 않았다. 올해도 공연을 통해 마련된 기금 2,000만 원이 ‘NGO 기아대책’을 통로로 국내외 어려운 곳에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될 것이다.

메시아 연주회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다. 이 연주회를 통해 우리는 연말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긴다. 참석하는 모든 분이 메시아 연주회를 통해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소망의 능력을 확실하게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연주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의 울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의 노래로, 섬김의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성도님을 이번 연주회에 기쁨으로 초청한다.

공연 문의: 02-588-9954

■ 큐티스쿨 수료 간증



/ 조병훈 성도(영종온누리교회)

큐티의 진면목 발견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다. 학창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믿은 지 32년째, 온누리교회 성도가 된 지는 21년째다. 느헤미야공동체와 여호수아청년부 활동을 거쳤고, 11년 전에 안내팀에서 섬기던 자매와 결혼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최근에는 부부 동반으로 온비아 과정을 마쳤고, 성인공동체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귀한 기회가 생겨 영종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교회 등록 직후 담당목사님의 사모님과 지인의 권유로 순장스쿨을 신청했다. 청년부 시절 양육자반 수료 기록이 아이스쿨에서 확인되어 순장스쿨을 수료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초 과목인 큐티스쿨을 아직 수료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서빙고 큐티스쿨에 참가했다.

처음에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특별할 게 있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다 안다’는 생각으로는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큐티에 문외한임을 인정하며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나’의 관점에서 보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를 닮아가는 것이 큐티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전에는 큐티를 막연하게 여기며 나에게 설교하듯 말씀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고, SNS에 나누기 좋게 정리해서 보여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고, 내 모습 또한 가식적으로 드러날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큐티스쿨을 통해 큐티의 진면목을 발견했다.

나눔 시간에는 양궁 선수가 명종률을 높이듯, 큐티 묵상과 적용의 핵심을 확인했다. 타인의 묵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내 묵상 방향과 깊이를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큐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지속적인 만남이며, 삶 가운데 순종하며 변화를 이루는 제자의 기본임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바쁜 사역 속에서도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주중 한두 번씩이라도 시간을 만들고, 차츰 늘려갈 것이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친밀감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 성재덕 집사(성북공동체)

“깊은 감사와 따뜻한 안부 전합니다”

지난 10월 31일 성북공동체와 평택온누리교회, 송파B공동체가 함께 고베개혁신학교를 방문했다. 성북공동체는 지난해 ‘리브소나타 효고’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성탄 선물을 교환하고,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랑을 이어왔다. 올해는 평택온누리교회와 송파B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고베개혁신학교 요시다 다카시 교장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왔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리브소나타 시가 집회 이후, 멀리 떨어진 우리 신학교까지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해 방문해 주신 성북공동체 성도님들뿐 아니라, 이번에는 평택온누리교회와 송파B공동체 성도님들까지 함께해 주셔서 크나큰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도시락과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신학교를 위한 귀한 헌금까지 더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성북공동체가 방문했을 때 받은 감동과 은혜가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공동체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귀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베개혁신학교의 학생 수는 많지 않지만, 그들은 일본 선교의 최전선에 서게 될 소중한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여러 분과의 사랑의 교제가 깊이 새겨졌다는 사실이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앞으로도 한국뿐 아니라 세계 선교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신학교를 비롯한 일본의 신학교들과 헌신자들을 계속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님과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님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서빙고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산교센터 부천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변대식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평택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인천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제주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안산 온누리M센터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태안온누리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AMA 형제교회춘천 새순교회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AMA 협력교회진재골온누리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재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얼바인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괌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 01821 시카고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뉴저지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3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오를랜드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동경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abasi Chuoku Osakasi Japan 우에다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 7-64 JAPAN 요코하마니시아바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오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DA DAIAMOND 2F 교토권영택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승수 변대식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노규석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승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태영 김도균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환 김영식
김요성 김용민 김용상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순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태광 김태웅 김태완
김한규 김현실 김홍주 노치형
렴문홍 문영재 민근홍 박근번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준 박천중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형삼 배성우 서수민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대홍 신원석 신현민 송동주
송재호 안사문영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성하 유진아 유현복 윤대린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이형목 이호준
임용성 장동훈 장선범 장재원
장지훈 전병천 전성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현석 정희성
제지훈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주하늘
최태훈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혁준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해동희 하원희
황문규 황신영 황유일

◆전도사(전임)

김한솔 박성원 박성훈 신주용
안도준 유현우 임동원 최강호
홍근영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해미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국내파전 목사
고범석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재 네트과
문봉주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컵 서경남 서영철
심은심 생애애 양현수 윤희혜
에릭 마이클 스톨츠 이만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이
이진희 임진숙 임혜선 정요한
정진모 제인랑 조광호 최선재
최정현 허효경 황원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강동현 강병주 권애람 권평화
권혁성 김가희 김경배 김기태
김동우 김병초 김미리 김민수
김민희 김빛나 김승희 김소망
김예찬 김유미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늘 김현정 김원범
김현주 김홍미 김화목 나가노
마사토 남 헤 네우빠네 피터
드미트리 문수진 박 권
박미애 박상현 박 성 박성훈
박시은 박요한 박유진 박의락
박종일 방예린 방진아
배윤주 배현미 서아연 서은규
서해진 손취결 송영로 송찬욱
신나래 신호철 안두택 연경덕
오성광 오성민 오예원 오진우
오혜광 옥준우 우수진 우승희
유석현 유요한 유지은 유 찬
윤길문 윤조현 윤종연 윤지현
이건준 이나딘 이미진 이민규
이강범 이선미 이소라 이소라
이승은 이승희 이시하라 나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박용 이우성 이우성 이우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우경
이용대 이창오 이재경 이재규
이준수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한규 이현조 이화영

조슬기 지석구 조영찬 조은식

최규종 최민정 최성진 최성진
최 은 최혜정 하예림 한용태
허영은 홍세나 홍솔기

◆지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신의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형호
구재영 권득환 권영석 권용선
권영환 권철준 권영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일 김두진 김병중
김명철 김명훈 김용석 김성목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수웅
김성수 김상인 김수억 김수웅
김영수 김용성 김 웅 김중철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원식 김원식 김원철
김종순 김주홍 김준홍 김진국
김종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걸 김형식 김형중
나상권 노재한 류지영 문성기
문창호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률 박병의 박봉래
박상송 박승우 박영국 박영국
박성길 박성국 박영국 박영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형민
박종균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용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서창섭 순한기 송영범
송영태 송유진 송일식 송재길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학철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훈보 안국영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태환 양유식 양재준
양준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우승구 원우원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유기홍
윤성열 유의준 유석우 윤영자
윤성열 윤영오 윤형덕 윤형자
이강범 이진재 이진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우용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우경
이용대 이창오 이재경 이재규
이준수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한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임병수 장 광

장규환 장선철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전한배 정강부
전대서 정돈영 정문봉 정병균
정보원 정상기 정순봉 정영열
정용화 정호진 정희태 조규상
정진호 정호진 정희태 조규상
최대희 조성근 조광준 정희원
정수영 정진하 주수일 주영일
최성진 최희준 최 명 최상근
최희준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준호
한정호 한성식 함공식 함선호
함일석 하광수 하형석 하종일
홍기영 홍덕표 홍병식 홍충철
홍정표 홍태남 홍영욱 홍용오

◆사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은철 강종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범 고영주 광병철 광진석
곽대일 곽희준 구자영 권순형
권오섭 권오혁 권현은 금세종
김경도 김경하 김광호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원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수
김상권 김상진 김상철 김선호
김성규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국 김신원 김영만
김정열 김정민 김정열 김중민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홍로 김우호 김이준 김인선
김정열 김정민 김정열 김중민
김종만 김중호 김준규 김준용
김지학 김지현 김지홍 김철식
김정열 김철민 김철수 김창기
김현주 김형식 김형준 김화선
김호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옥 나병환 남상길
남윤창 남정진 남주연 노경환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문영환 문상진 문영기 문정호
민문기 박구평 박근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원 박두원 박명근
박성규 박성현 박일면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지완 박해한

박 현 박현규 박홍선 방창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배종신
서달석 서명수 서주명 서봉하
송광재 송기섭 송동섭 송기철
송태용 송기현 송기현 송기현
송호철 송기현 송기현 송기현
송민환 송민환 송민환 송민환
신철우 신현수 심갑섭 심창호
심효주 심희준 안상현 양상식
양성철 양준홍 양준홍 양준홍
양 웅 양오범 양내문 원종호
오승탁 오이식 윤상문 윤석일
이병국 이병호 이병철 이병철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현 이남식 이대용
이광수 이대용 이대용 이대용
이상용 이상준 이상혁 이석일
이성진 이성일 이수만 이승배
이진준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재형 이재광 이재준 이준주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풍우 이태열 이학일 이혜달
이홍선 임 훈 임상범 임정열
임재남 임태원 임호영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문석
장우진 장정석 장영수 장영철
정일영 정제범 정진희 정태경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운섭 정원만 정용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주성대 주재량
진중구 차준근 최민준 최봉림
최석민 최성만 최용일 최주관
최현재 최원수 최호림 하성진
하영남 한동욱 한복규 한성규
한승만 한영우 한왕식 한필주
함정철 허 경 하대환 허복만
허정원 허정원 허필우 홍갑진
홍성원 홍의택 홍충선 홍승우
황병원 황상윤 황성복 황성주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영만 이원로 이희상
장옥룡 정광택 정상근 지성환
채수삼 홍순직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래트박 박지인

박현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주치수 최태화 최원호 최홍준
추교명 합지연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준현 강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은혜
김정경 김정환 김지형 김 찬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용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진
손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환
전병근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문봉주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택 요시하라
마루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아바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재정 이종재
정장철

◆부목사

김기홍 김명석 김상례 김상훈
김성근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장인 김정은 김진우
김창식 김광선 남진숙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미은
박종훈 박찬빈 박현식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석 손 답
손정욱 손미경 송진선 신기원
심재현 심현진 안성진 양진범
엄영기 유윤상 유영종 유영순
이영호 이도우에 마키 이마즈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주영
이정주 이정원 이형근 장이서
장재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준
정동윤 조수정 최성석 최철홍
한중재 허 민 홍동욱 홍 정

◆전도사

강요하나 강진영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정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백만기 서영찬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오지혜
아다엘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윤기 이은실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성현 진혜선
최윤호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하정훈 한현희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Leo
Wang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지역장로

김하윤 권덕수 김경덕 김경선
김수광 김수호 김 완 김현중
남 영 노홍규 백남인 백종현
서인택 신준수 송창도 안종민
우광범 우승호 윤영오 이광철
이문호 이용하 이정기 임병욱
정갑안 한덕중 홍규석

◆사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고다이라 김승진 김재웅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노유철 박호태
성한재 송정래 송태민 신술문
심상일 여춘필 유형민 이관표
이상현 이수성 이승구 이은창
이준상 송정래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요환 최경주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Christine Kwon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우선 김요셉 김중수 윤정근
유한돈 안덕식 임한식 오명진
정석환 최승호 최태영

소천

11/15(토) 양재A 이세영 성도 부친상 고 이재문
11/21(금) 강남E 이화영 권사 부친상 고 이종태
11/23(일) 서초A 받은숙 집사 부친상 고 박한욱
11/22(토) S브릿지 최은영 성도 부친상 고 최정신
11/23(일) 광명 고 양재욱 권사
11/23(일) 가정사역 선미화 성도 부친상,전승환 성도
빙부상 고 선정록
11/24(월) 이촌 유남진 성도 부친상,김영미 권사 시부상
고 유진호
11/27(목) 성동광진 임용빈 집사 모친상,지연주 권사
시모상 고 이경숙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형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차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상 어
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후원자: 070-4489-6880
신청 및 문의: 매일한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갈 봉사
신청: VMS 신청, 유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장소: 강계중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역방생당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라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의료인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
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현금온라인 안내
입금주최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요일 10시-오후 5시, 토요일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뮤니티 자동차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말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근 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m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일시: 12월 27일(토) 오후 5시
장소: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주제: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라
지휘: 최영은 성가사
입단 문의: 김유미(010-3923-0416)

두란노국제선교회(TIM) 간사 채용 공고
모집: 훈련 및 일반선교행정 1명(명규직, 4대보험)
자격: 세례교인, 경력 무관
우대: 장·단기 선교 경험, FA(온누리청년단기선교)
지원: 두란노국제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
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pmanager@4love.com)
마감: 12월 6일(토) 혹은 채용 시까지
문의: 이정주 선교사(070-4464-8102)

du+ duplus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연말에 딱 한번!

두플러스 연말 Sale

최대 35%

가정과 교회, 선교지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복음 플랫폼



이벤트 기간 2025. 11. 20 ~ 12. 30

구독 종류 비정기 1년 이용권

구분	프리미엄 플랜	스마트 플랜
1년 이용권	정가 ₩ 300,000원	정가 ₩ 204,000원
개인 구독	210,000원 + 2개월 더! 30%	(없음)
5인 이상 단체 구독 (1인 기준)	195,000원 + 2개월 더! 35%	150,000원 + 2개월 더! 25%

- 위 이벤트는 프리미엄/스마트 플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 구독은 5인 이상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0인 이상의 경우,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객센터로 문의).

신청 방법
(택일)

- ① QR 스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결제
- ② 두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결제



신청서 작성

고객센터

문의 ☎ 02.2078.3234 TALK 카카오톡(@두플러스)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금 두플러스 Q 를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